

##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귀환’: 한국사회에서의 경험과 정체성\*

권숙인 | 서울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조국’으로 ‘귀환’(return)한 재일한인(在日韓人)의 경험과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과 인식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재일한인 젊은이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는 배경과 목적,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그들의 귀속의식과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다른 디아스포라 귀환 사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재일한인의 사례가 갖는 독특한 이론적 함의에도 주목한다.

해외 거주 디아스포라 한인 중 재일한인이 갖는 특수성은 그 역사가 식민지배에 기원을 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과 태도가 식민지배의 역사와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런 감정은 종종 귀환한 재일한인에게 투사된다. 국민국가 속에 살아가는 소수 민족집단으로서 재일한인의 또 다른 특징은 이들이 문화적으로는 현지사회에 높은 동화양상을 보이면서도 구조적으로는 낮은 수준으로 동화되어 있는 점이다. 한국행을 하는 재일한인 후손 대다수는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어를 포함해 한국문화에 대해선 무지하거나 서투르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재일한인 귀환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무지를 이해하기 힘들어 하며, 그들을 동료 ‘한국인’으로 포함시키길 주저한다. 그 결과 ‘보다 온전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한국으로 온 재일한인 귀환자들은 ‘조국’에 도착해 여러 종류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편견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수정하거나 타협해 간다. 재일한인 귀환자들은 한국에 오면 ‘더 진짜 한국인’이 될 거라 기대했지만 ‘한국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자이니치(在日), 혹은 ‘재일교포’라는 범주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긍정해 간다.

주제어: 디아스포라 귀환, 재일한인의 귀환, 민족정체성, 반쪽발이, 자이니치(在日), 재일교포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입교수연구정착금(2006년도 하반기)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 I. 서 론

이 연구에서는 ‘조국’으로 ‘귀환’(return)한 재일한인(在日韓人)<sup>1</sup>의 경험과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과 인식을 고찰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일한인은 1945년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했던 조선인 및 그 후손으로, 최근의 ‘뉴커머’ 재일한국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본 논문에서 말하는 ‘귀환’은 한국에서의 체류가 영구적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조국으로 ‘돌아 왔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즉, 살펴보게 될 사례에서 피면담자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 목적이나 실체는 유학이나 연수인 경우가 많고, 체류 기간이나 계획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한 것은 이들이 한국 행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조상의 나라, 혹은 자신의 나라에 ‘돌아 왔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에서 고찰하는 사례들은 최근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디아스포라 귀환’(diasporic return)의 사례들과 일정정도 비교의 관점을 제공한다. 디아스포라 귀환(이주)란 민족적 기원지를 떠나 수 세대에 걸쳐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그 기원이 되는 나라로 돌아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세대에 걸친 이산 경험을 가진 민족집단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 다시 조상의 나라로 돌아오는 경우이다. 유대인 귀환이라는 ‘고전적인’ 사례 이외에도, 2차 대전 이후 대규모로 진행된 게르만인의 서독으로의 귀환(Dietz, 2000; Levy, 2003; Munz, 2003)이나 1990년대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던 다양한 민족적 배경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민족국가로 귀환한 사례(Iglicka, 1998; Kulu & Tammaru, 2000)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19세기 후반 이래 중남미로 이주해 갔던 일본인 후손들, 소위 ‘닛케진’

---

1. 재일한인에 대한 명칭과 그 명칭이 함의하는 정치적 의미는 다양하나 이 논문에서는 “Koreans in Japan”이라는 의미로 재일한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인터뷰 자료를 인용할 때는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자이니치(在日)” 등 본인들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日系人)이 일본의 경제성장과 혈통적 연결성을 우대하는 법제도를 활용해 귀환하는 것(Linger, 2001; Roth, 2002; Sellek, 1997; Tsuda, 2000, 2003)과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 한인의 귀환(유명기, 2002; 이혜경 외, 2006; 전형권, 2006 등) 등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중 일본계 중남미인이나 중국적 조선족의 귀환은 일차적으로는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 노동이주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국제이주 일반과 비교해 독특한 학문적 쟁점을 제기한다. 국제이주의 동기가 흔히 국가 간에 나타나는 경제적 격차를 기반으로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국경을 넘는다면, 디아스포라 귀환이주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조국과의 민족적 연결성 및 이 연결성을 우대하는 정책에 의해 촉발되고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목할 것은 이처럼 기원지와의 출계상 연결성이 일본계 중남미인이나 조선족의 귀환이주에 중요한 배경이 되지만 이러한 사실이 이들이 '조상의 나라'에서 주변화 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이들을 주변화 시키는 커다란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귀환자들이 차지하는 주변적인 위치이지만, 이런 경제적 이유 외에도 문화적 차이, 특히 민족적 정체성과 귀속을 둘러싼 기대와 가정의 상충이 조국에서의 귀환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거나 갈등의 원인이 된다(권숙인, 2004; 유명기, 2002; Tsuda, 2000, 2003 등). 이런 점에서 최근의 초국가적 노동이주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귀환이주의 경우도 2차 대전 직후 게르만인의 서독이주나 구 소련지역의 귀환이주처럼 주로 정치적 이유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귀환에서 귀환자들이 조국에서 겪는 경험과 많은 공통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귀환 현상은 초국가적 이동, 민족/종족, 문화, 국적, 계급 등이 교차하면서 연출되는 정체성 정치를 고찰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롭고 전략적인 연구지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의 디아스포라 귀환 집단과의 비교를 염두에 두고 재일한인의 한국사회에서의 경험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재일한인 후손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는 배경과 목적,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그들의 귀속의식과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다른 디아스포라 귀환 사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재일한인의 사례가 갖는 독특한 이론적 함의에도 주목한다.

## II. 디아스포라 재일한인과 ‘귀환’

해외 거주 디아스포라 한인 중 재일한인이 갖는 특수성은 그 역사가 일본 식민지배에 기원을 둔다는 점, 그리하여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과 태도가 식민지배의 역사와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 단순한 편견에서부터 극단적인 혐오감까지 — 갖고 있으며, 이런 감정은 종종 귀환한 재일한인에게 투사된다. 재일한인에 대한 “반쪽발이”라는 표현은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즉 재일한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태도는, 다른 디아스포라 귀환자 집단의 경우와 달리, 귀환자들이 드러내는 문화적 차이나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보다 한일 간의 역사적 관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민국가 속에 살아가는 소수 민족집단으로서 재일한인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이들이 “문화적으로는 높은 동화양상을 보이면서도 구조적으로는 낮은 수준으로 동화되어 있는 점”(Kashiwazaki, 2000: 53)이다. 한국행을 하는 재일한인 후손들 거의 대다수는 아직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태어나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외국인 신분이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를 포함해 한국문화에 대해선 무지하거나 서투르다. 이들에게 모어(母語)는 일본어이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배워야만 하는 자질이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재일한인 귀환자의 무지를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한국인이면 ‘응당’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문화와 역사를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이 때 말하는 ‘한국인’의 기준엔 다분히 혈통주의적 전제가 작용한다.<sup>2</sup> 특히 재일한인 귀환자의 경우 ‘몸에 배인’ 언어와 문화가 다름 아닌 일본의 것이라는 점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2. 예를 들어 한국으로 귀화하여 법적으로 한국인이 된 ‘외국인’의 서툰 한국어에 대해선 훨씬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다.

만든다. 한국인들은 재일한인이 드러내는 일본적 속성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그들을 동료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길 주저한다. 예를 들어 박진명·김상진(2004)이 2004년 6월에 서울 소재 5개 대학 남녀대학생 4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재일한국인, 재미한국인, 재러시아한국인 등 여러 재외국민 중 어느 집단을 가장 좋아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상대로 재미한국인이 가장 좋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재일한인을 일본인으로 봐야 하는지 한국인으로 봐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가 “일본인 혹은 국적불명자”로 본다는 답을 했다. 설문에 응한 연세대의 한 학생은 “솔직히 학교 복도에서 일본어로 떠드는 학생들을 보면 일본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재일한인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결국 한국에서 “국적 있는 외국인”이거나 “‘한국인’에 포함되지 못하는 ‘재일교포’”<sup>3</sup>라고 깨닫게 된다.

언급했듯이 디아스포라 귀환자들이 ‘조국’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과 이로 인한 정체성의 재구성과 협상은 최근 다른 사례 연구에서도 자주 지적된 점이다(예를 들어 Igllicka, 1998; Levy, 2003; Tsuda, 2003 등). 디아스포라 귀환자들은 조상의 나라로 이주할 경우 제도적인 수용에서 종종 ‘특권적인’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이들의 귀환을 촉발하는 배경에도 경제적 고려뿐만 아니라 민족적 연결성과 충성심이 의미 있게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성과 충성심이 귀환 후 조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과 우호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재일한인의 경우도 귀환자들이 조국에서 겪게 되는 갈등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록 재일한

3. 한국사회에서 재일한인에 대한 호칭은 일반적으로 ‘재일동포’와 ‘재일교포’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 권혁태는 해방 후 미디어에서 이 두 용어가 실제 사용되어 온 빈도수를 추적하면서 재일한인의 호칭이 한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표상의 정치를 반영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1950년대 중반 이후 민족적 입장을 강조하는 ‘재일동포’에서 ‘북송사업’에 대한 대항이라는 냉전적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재일교포’로 변화하게 되었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총련계 동포에 대한 동화/회유라는 차원에서 ‘재일동포’라는 용어로 다시 변화”(권혁태, 2007: 244)했다는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 협조한 재일한인들은 대부분 ‘재일교포’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재일동포’란 말이 내포하는 강한 민족주의적 함의가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피면담자들이 선택한 ‘재일교포’란 용어를 사용한다.

인은 경제적으로 보다 선진국에서 귀환한 경우이지만 다른 귀환자 집단, 예를 들어 재미한인의 경우와 달리 한국사회에서 심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은 이들이 자기 정체성과 관련해 보다 복잡하고 갈등적인 여정을 겪게 만든다.

귀환 재일한인의 경험과 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학문적 접근은 매우 소략하다. 그런 점에서 한 재일한인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유끼, 2001)은 귀환한 재일한인 학생들의 경험과 정체성에 대한 풍부한 인터뷰 자료를 소개하고 있어서 좋은 참조가 되었다. 이정훈 역시 ‘재일동포 모국 수학생’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이란 주제를 연구한 바 있으나(이정훈, 1996), 분석의 초점이 포괄적인 민족정체성에 맞춰져 있어 이들의 정체성이 귀환 후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귀환자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한국인들이 재일한인에 대해 갖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선 정대성(2003)과 권혁태(2007) 등의 연구가 있다. 특히 권혁태는 주로 대중문화 텍스트를 활용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재일한인들이 ‘민족’, ‘반공’, ‘개발주의’라는 필터를 통해 재현되어 왔음을 분석하고, 이러한 필터가 최근 현저히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재현방식과 고정관념이 재일한인의 귀환 경험에서 중요한 맥락이 됨은 물론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 와 있는 11명의 재일한인에 대한 심층인터뷰 자료를 중심으로<sup>4</sup> 귀환하는 재일한인들의 귀환 동기와 배경, 한국사회에서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귀환을 통해 민족과 조국, 국민국가, 문화를 매개로 한 정체성이 어떠한 변화를 겪으며 타협되고, 새로운 모색이 시도되고 있는지 고찰한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11명 중 교환교수로 체재 중인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대 혹은 30대 초반으로, 8명은 현재 한국의 대학(원)과 어학원에서 수학 중이며, 한 명은 전업주부, 한 명은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11명 모두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며, 조총련계 민족학

4. 이들에 대한 인터뷰는 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개인의 생애사와 가족사 전반과 귀환의 동기, 한국사회에서의 경험과 정체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피면담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소개를 통해 선정되었다. 논문에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표 1> 피면담자 관련 주요 사항

이름	출생년도와 출생지	세대/가족	성장지 환경	인어 생활	차별 경험	교육배경	한국은 경로와 시기	한국 온 동기	현재 직업	장래 계획	정체성 정의
김선미 (여)	1984 히로시마	2.5세대, 2세대, 1세대 가족 모두 한국적	'한국인' 비참한 사안	엄마한테서 어 배워 조금 알았음	없었다. 외국인이 있어 친근할 것 같았다.	고교까지 일본인 학교	유학 (2002)	한국말/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외교관 되기 위해	대학생	아직 잘 모름	재일교포다(나를 쉽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이나라 (남)	1983 오사카	부, 3세대, 1세대, 2세대, 여동생 모두 한국적	(절문 누락)	어머니는 한 자국어 들기 어려움. 대충 배운 것만 써서 한국 와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있었을 때. 그중 이 유로 들이 다르다는 정도	유치원과 정 6개월 민족학교, 이후 소학교에서 고교까지 일본인 학교	유학 (2002)	아버지 의 '강요' + 본인 인이 느낀 당 막연한 위생	대학원 생	한국과 일본을 연결 하는 것 에 대한 학문적 탐 구	누가 뭐래도 한국인이다. 그리고 자이니치(在日)다. 재일교포라는 것 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적을 버릴 수 는 없을 것 같다.
김영혜 (여)	1980 오사카	2.5세대, 2세대, 1세대, 언니 1, 여동생 1	일본인들 만 사는 거주지	한국 고 말 못 하 자람	별로 없다 친 부 들이 러워 했다	전부 대학 까지 졸업 일본 학교	유학 (2004)	조국을 알 기 위해	직장인	아직 잘 모름	중간자(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님)
고수철 (남)	1984 동경	3세대 부모 모두 2세, 여동생 포함 가족 모두 한국적	(절문 누락)	한국 말 하는 경 이 아니 었다	차별 받은 기억 은 없 었다	고등학교 까지 일본 학교만 다녔다	유학 (2004)	한국어 배 우기 위해	대학생	아직 모르지만 일본에 풀 아가서 직 장 감을 가 한다	한국에서는 확 실히 '재일교포'인 것 같다. 한국인 이라기 보다.
강우희 (여)	1980 동경	3세대 부모, 여동생 1, 모두 한국적	일본인들 거주지	한국 말 사 지 못 하 자람	직접 적으 로는 별 로 없 었다	고등학교 까지 일본 학교	유학 (2000)	한국에 대 해 배우고 싶 었다. 한국 어도 하 고 싶 고.	대학원 생 + 일 어 원 본 학 강사	정확 히는 모르 겠으 나 한국 서 일본 어 가 르치 는 일 찾 고 싶 다	일본에서는 자 이니치, 한국에서는 재일교포다. 이제 는 이렇 게 정 리 되 었다.
양석 (남)	1977 동경	3세대, 형, 조선적/누나, 한국적/모 한국적, 신청 중/본인 한국적	동 경 의 재일조선 인 집주 지. 최근 뉴 거 증, 나 는 잘 안 배 웠다. 공 부 못 함.	조선학 교 서 러 공 부 못 함.	3, 4년 선 배 들 까 지 만 해 도 하 루가 일 본 아 이 들 하 고 있 었 다. 나 도 많 이 맞 아 써 온 권 투 서 서 는 적 있 다	조선소 중 고 졸업, 조선대 2 세 명 의 형 제 자 매 모두 조선 학교	유학 (2003)	한국에 대 해 더 많 이 할 것 같 아서	대학생	아직 잘 모르 나, 작 가, 한국 서 계 속 살 게 획 도 있 음	일본사 람도 아 니고, 한국 사 람도 아 니다. 굳 이 물 으면 재일 조선 인 이다
박혜선 (여)	1979 포교도	3세대, 오빠만 일본국적(회출생으로 불려서), 나머지 가족은 한국적(조선적에서 2000년 바꿈)	주변 에 재일교 포 없 었 다	일본어 로 한 기 의 모름	직접 느 낀 것 은 없 었 음. 유 연 인 때 지 한국 이름 은 계속 멀 어 짐.	형제 들 전 부 유 치 원 부 터 대 학 까 지 일본 학교 돈 없 어 대 학 못 가 신 부 모 님 이 대 학 강 조, 형 제 모 두 대 학 감	대 학 4 개 월 후 한국 에 대 해 공 부 하 고 싶 어 서 (2006년 부터 1년)	한국 말 배 우기 위 해, 한국 에 대 해 공 부 하 고 싶 어 서 (처음엔 부 친 반 대)	사 실 학 서 원 한국 어 공 부 한 조 각 보 만 들 기 배 움	현재 결 혼 계 획 한 것 이 없 으 나, 결 혼 하 면 한국 서 살 아 하 락 할 다.	한국 사 람 되 는 거 이 제 는 포기 했다.

<표 1> 계속

이름	출생년도와 출생지	세대/가족	성장지환경	언어생활	차별경험	교육배경	한국은 경로와 시기	한국은 동기	현재 직업	장래계획	정체성 정의
김해자 (여)	1975 동경	3세	일본인 거주지	일본인 사용	특별히 차별받은 역 없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전부 일본학교	유학 (1998)	한국말 공부하고 한국에 대해 배우기 위해+부모님 권유	대학졸 후 한국남자 혼전 취업주부	아마 계속 한국에서 살게 될 듯. 우선은 육아에 신경쓰고 있다.	한국인? 한국인들과 차이도 없고 갈등도 겪었으나 이제는 크게 개의치 않으려고 하고 있다.
정길용 (남)	1982 교토	3세 부모 모두 2세 가족 모두 한국국적	(질문 누락)	집안 식구 중 한국어는 사람 없었다. 조부모는 하마만 사지 자주 만남	별로 없다	고등학교까지 일본학교	대학당료 이수 유학 (2003)	대학은 한국에서 다니고 싶었다. 뿌리의 확인이랄까.	대학생	아직 잘 모르지만 부모님 계시기까일 것 같다.	자이니치. 온전하게 일본인도 한국인도 될 수 없다.
이은미 (여)	1980 후쿠오카	2.5세 부모, 여동생 1 모두 한국국적	일본인 거주지	일본어 사용. 한국어 단란 몇 아는 도	직접 경험 거의 없다	소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일본학교 다님	유학 (2001)	한국사회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생	한국전문 연구자! 박사학위 받고 일본에서 할까 생각 중이다	재일교포이자 자이니치이다. 이제는 재일교포인 것이 몇몇하다

교나 유치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 두 명을 제외한 9명은 한국으로 오기 전에 일본학교 밖에 다니지 않았다. 20~30대의 10명은 모두 재일한인 2.5세 혹은 3세로, 일본에서 1980년대와 90년대에 학교를 다녔고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으로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최근에 한국사회로 귀환한 젊은 세대 재일한인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표 1> 참조).<sup>5</sup>

5. ‘문우식’이라는 가명으로 등장하는 재일한인 2세이자 50대 중반인 교향교수의 사례는 아래 도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성장과정이나 한국으로 오게 된 경로와 시기에서 나머지 다른 피면담자들과 시대적 배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일조선인’ 문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해 온 이 학자와의 면담은 젊은 세대 귀환자들의 경험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그 자신의 귀환 경험은 젊은 세대 귀환자들과 공통점과 동시에 차이점을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가 되어 주었다.



### 3. 한국으로의 귀환 경험과 정체성

#### 1) 귀환의 동기와 배경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피면담자들이 한국에 오게 된 표면적인 형식은 거의 대부분 '유학'이다. 그러나 유학이나 공부의 목적이 단순히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한국유학을 통해 '조국'을 체험하고 배우는 것이 보다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동기 때문에 일부는 좋은 일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했다고 답하였다. 피면담자들은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여 보다 '온전한' 혹은 '완벽한'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본인의, 혹은 부모의 희망을 주요 동기로 자주 언급하였다. 어려서부터 줄곧 조선학교를 다녔고 조선대학교를 2학년 까지 다닌 적이 있는 양 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선대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다 그만두었어요. 조선대를 졸업하면 결국 재일조선인 사회 안에서 삶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세상을 알고 싶다는 생각에 2년 만에 중퇴하고, 회사에 취직해 3년간 일을 했어요. 호주에 가기 위해서. 일본을 한번 벗어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2001년에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서 사람들이 물으면 "I'm a Korean"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Korean이라고 하면서도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게 부끄럽고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호주에서 한국형들도 많이 만나면서, 점점 한국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북한에는 갈 수도 없고 가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현재 한국어와 한국 전통공예를 배우고 있는 박혜선 역시 고등학교 무렵부터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말을 못하는 것이 뭔가 창피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 반면 이

---

6. 동경에 소재한 조총련계 민족학교로, 민족학교 중 유일한 대학교이다. 대개 민족학교에서 초중고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며, 졸업생들은 각 급의 민족학교 교사를 비롯해 재일조선인 공동체 안에서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라의 경우는 아버지의 '강요'로 한국행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피면담자들과 차이를 보였지만, 이 경우도 아버지의 '강요'의 목적은 아들을 '제대로 된 한국인'으로 키우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인들한테 차별을 엄청 많이 당하셨어요. 일본의 한 대학을 다니다가 1970년대 후반에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으로 유학을 오셨어요.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셨다가 제일동포학원간첩사건, 뭐 그런 거에 잡혀 들어가셨어요 ... 1983년에 가족을 데리고 겨우 일본으로 도망칠 수 있었어요 ... 아버지는 일본으로 오신 뒤 더더욱 민족주의자가 되셨는데, 그래도 민족학교는 싫어하셔서 저를 일본학교에 보냈어요. 그렇지만 일본인으로 키우시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어려서부터 매일 너는 한국인이고, 때문에 일본인에게 지면 안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절대 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고 ... 자라면서 한국인이라는 게 자부심이었어요. 뭔가 영웅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나는 특별하다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 아버지가 많이 강요를 하셨어요. 대학을 한국으로 가라고 ... 한국인으로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나를 한국으로 보내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일본대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어려서부터 들은 강요가 있어서 한국에 가야할 것 같은 생각도 막연히 있었어요. 주변의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아주 확고했어요.

다른 피면담자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서”, “내 나라이기 때문에” 등 비슷한 동기를 강조했다. 특히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 보다 정확히는 민족적 정체성의 기준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이 생각하는 ‘결함’을 — 언어나 지식과 관련된 — 보완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부각된다. 다른 한편 피면담자들 대부분이 일본에서의 민족차별에 대해 적어도 직접적인 경험은 없거나 거의 없었다는 대답을 하였다<sup>7</sup>. 즉 한국행을 하는 주요 동기인 ‘민족적인 이유’가 이전처럼 차별과 억압적인

7.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일본 내 차별현실이 많이 개선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의 샘플이 갖는 ‘한계’도 일정정도 작용했을 수 있다. 조선학교를 다닌 양식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언급한 경우는 없었으며, 학력사회 일본에서 대부분 ‘우수한’ 학생이었던 점도 차별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격'을 보다 잘 갖추고 조국을 경험하고 싶다는 데 있다. 그러나 아래에 인용하는 김선미의 경우에서처럼 아직도 일부는 민족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에 덧붙여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 기회를 찾아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가 어려서부터 좀 활동적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계속 반장을 했었고 친구들도 많고 일본 대학에도 가보고 싶고 그런 리더십을 강조하면 추천제도로 동경 쪽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서 일본대학으로 갈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생각하게 된 게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배워야겠다는 거랑, 또 하나는 중학교 때 쯤부터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거든요. 국제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외교관 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외교관이 되려면 일본에서는 될 수 없잖아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때 리(李) 선생님한테 배운 거 같아요. 변호사도 그렇고 그런 직종은 재일교포는 못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럼 일단 한국에 가야겠다. 일단 한국어 먼저 빨리 배워야겠고, 시험 같은 것도 한국에서 봐야 하니까 일단 한국에 가서 한국대학에 들어가게 됐고요. 한국에서 시험을 치고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 2) 어려움, 장애, 편견

재일한인 귀환자들은 조국에 도착하는 순간 여러 종류의 어려움과 편견, 차별에 부딪힌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실망하거나 배신감, 분노를 느낀다. 한국사회의 편협성에 유감스러워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새로이 고민하고 재고하기 시작한다.

### (1) 주민등록증: 제도적 장애와 차별

인터뷰에 응한 모든 피면담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고 민족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애로 주민등록증을 꼽았다. 국내의 한국인들은 만 17세가 되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이는 국민을 관리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국적자이지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재일한인들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등록을 하고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는다. 거소신고증은 모양은 주민등록증과 거의

흡사하지만 번호체계가 다르다. 주민등록증의 뒷 번호 7자리는 성별에 따라 1 혹은 2로 시작하지만, 거소신고증은 5 혹은 6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재류자격을 얻을 것이란 기대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지만, 실제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번호를 입력하면 “틀린 번호입니다”, “잘못된 번호입니다” 등의 메시지가 뜨는데, 그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한국에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거소신고증으로는 휴대폰 계약도, 심지어 마라톤대회 접수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이” 다른 증명서류를 더 만들어 내야 한다. 이나라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배제의 경험과 관련해 좀 더 극적인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

...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신경이 예민해 지는 저를 발견했는데, 어느 날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밤 새벽에. 저는 하숙집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워낙 쉽게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 이런 부탁을 잘 못했는데 ... 그래서 혼자 새벽 3시에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아 가까이 있는 응급실까지 가달라 했는데, 갔더니 거기서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주민등록증 보여 달래요. 뭐 상상이 가겠지만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있는 게 학생증 밖에 없는데 학생증 보여줬더니 “외국인이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아닌데 ...” 했더니 “그럼 왜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재일교포예요, 국적은 한국이고” 했더니, “그럼 왜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러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픈 데요” 했더니 “게다가 여긴 안과가 아니예요. 안과는 강남역에 가면 있어요. 다시 가주세요” 하는 거예요 ... 전 그때 되게 떨고 있었어요. 오버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서웠어요, 죽을 줄 알고 죽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 택시로 강남역까지 가고 있었는데 혼자 울고 있었어요. 여기서 끝나다! 이러면서. 거기서 안과를 가서,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좀 봐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고 했어요.

특히 재일한인들이 한국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사회에서 겪어야 했던 제도적 차별을 고려하면 재일한인 귀환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제도적 배제에 대한 반응은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교환교수로 한국에 처음으로 장

기체류 중인 문우식은 거소신고증을 신청하면서 느낀 제도적 불합리성과 무신경한 대응방식을 아래와 같이 비판한다.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휴대전화도 못 만들고 짐 찾고 할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최소한 일 년 있을 생각이어서 출입국관리소에 갔는데, 호적등본과 영주권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호적등본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 내 호적지 번지수를 기억하지 못해서 일본에 전화를 해서 번지를 물어서 비교적 쉽게 해결을 했어요. 또 하나는 영주권 증명서인데, 이건 마침 복사해 온 것이 있어서 됐습니다. 그러나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물어봤더니 “일본대사관에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런 증명을 해줄 리가 없지요. 또한 재일조선인의 오랜 차별과 고통의 근원이 그 외국인 등록령 하의 법적지위인데, 왜 한국정부가 그 일본의 영주권 증명을 요구하는지?

그러나 쉽지 않게 얻은 거소신고증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 김영혜 역시 주민등록증제도에 의한 배제경험을 겪으며 자신이 느꼈던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완전히 외국인이거나, 국적 있는 외국인. 그렇게 느꼈어요. 일본에 있을 때도 외국인이고 한국에 있을 때도 외국인이거나, 그렇게. 재일교포라는 국적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 (2) 한국어: 두려움과 좌절감의 원인

재일한인 귀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가장 자주 경험하는 어려움은 한국어 사용과 관련된다.<sup>9</sup> 많은 한국인들은 혈통상 한국인이자면 응당 한국어를

- 
8. 이차대전 이후 재일한인은 일본사회에서 오랫동안 차별을 받았는데, 일상적인 차별과 편견 외에도 소위 “국적조항”은 이들에 대한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차별의 ‘편리한’ 근거가 되었다. 재일한인이 ‘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참정권이 거부되고 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취업차별을 받았으며, 사회보장에서 배제되고 공영주택 입주 권리도 부정되었다. 1980년대 이후 국적조항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일본 국적 없이도 지자체 공무원이 되거나 일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9. 96명의 재일한인 모국 수학생에 대한 이정훈의 설문결과 역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소통의 어려움(55.2%)과 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14.6%)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귀환자들은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모국어’ 능력과 관련해 질책을 듣거나 의심스런 눈총을 받게 된다. 공항의 입국심사관들은 종종 귀환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암시해 주는 첫 번째 역할을 하고, 혹시 공항에서 운이 좋았다라도 택시운전수가 심문관 혹은 교사 노릇을 자처한다. 혹은 하숙집의 어린 꼬마도 순진한 호기심을 숨기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묻는다. “한국인인데 왜 한국어를 못해요?” 한국어와 한국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싶어 유학을 왔던 박혜선은 말한다.

유학 온 뒤 한국어가 정말 안됐어요. 처음 들어간 하숙집 주인들은 당연히 일본어 못하니까, 저도 한국말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 거기 사는 초등학교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이가 같이 간 제일교포 친구 얼굴보고 누나들은 왜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못하냐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때 정말 ... 그 때 혼자 울었어요. 어디 쇼핑 하러 가든가 지하철 타러 갈 때 사람들이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길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하잖아요. 이상하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 그 때는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으셨나 하고, 조선학교에 보내던가,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원망했는데, 그래도 부모님 마음을 알고 있으니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어와 관련해 귀환한 재일한인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이들 역시 부분적으로는 본질주의적인 언어 민족주의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언급한대로 젊은 세대의 재일한인 대다수는 언어를 포함해 문화적으로는 일본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한국인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느끼게 되면서 서툰 한국어에 수치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귀환의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자신이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 것, 그 점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에 대해 매우 복잡한 심정을 갖게 된다. 박혜선의 인용에 나타난 것처럼 스스로에 대한 수치감, 부모에

---

임을 보여주고 있다(이정훈, 1996: 97).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재일한인에게 한국어 사용의 문제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제를 넘어서 정체성과 자긍심에 밀접히 연결된 복잡한 도전이 된다.

대한 원망, 쉽게 한국어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 데서 오는 좌절감,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섭섭함과 상처 등이 교차한다. 왜 한국어를 못하냐는 한국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들이 겪은 일본에서의 어려운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판이라고 간주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한국어를 더 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동의한다.

어느 쪽이 되었건 귀환자들은 일상생활을 통해 언어와 관련해 딜레마를 겪게 된다. 만약 서툰 한국어에 유창한 일본어를 쓰면 한국인들은 단번에 이들을 일본인이라고 결론짓는다. 일본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고백하면, “그런데 왜 한국어를 못하냐?”란 질문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의심한다. 그 결과, 특히 한국 체재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어를 하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며 두려움이기도 하다. 어떤 이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한국인으로 ‘통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는 강우희도 언급하듯이 이들이 일본사회에서 일본인으로 ‘통하기 위해’ 한국어(‘본명’)를 쓰지 않고 일본식 이름(‘通名’)을 사용하는 전략을 환기시킨다.

한국어 사용과 관련해 재일한인 귀환자가 느끼는 자신감 없음과 한국인들의 인내심 부족의 저변에는 재일한인의 모어(母語; mother tongue)가 다름 아닌 과거 식민지배자의 언어라는 점이 있다. 일본어 원어민으로서 귀환자들은 한국어를 할 경우에도 종종 독특한 일본어 억양과 발음을 하게 되는데, 많은 한국인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비웃는다. 문우식은 재일한인이 언어와 관련해 부딪히는 특별히 딜레마적인 상황을 “모어의 수인(囚人)”이란 말로 표현한다. 재일한인이 소수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초래한 식민지배를 인식하게 되고 스스로의 민족적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자 애쓰더라도 이들은 별 수 없이 바로 그 식민자의 언어인 일본어에 의존해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총련이 운영하는 민족학교(‘조선학교’)를 다녔던 경우에는 한국어 사용과 관련된 좌절감이 한 번 더 뒤뜰릴 수도 있다. 조선학교의 공식 언

10.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재일한인 만화가 정구미는 자신의 한국 체험을 소재로 한 만화책(정구미, 2005)에서 이런 전략 때문에 겪었던 ‘회비극’을 고백한다. 시장에서 딸기를 사던 저자는 딸기를 파는 아주머니가 상한 것들을 함께 비닐봉지에 넣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만다.

어는 ‘조선어’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훨씬 좋다<sup>11</sup>. 그러나 이들이 쓰는 한국어는 북한말의 일종으로 남한에서 쓰는 말과 어휘나 억양 등에서 차이가 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북한 언어가 매체 등을 통해 종종 조롱거리나 희화화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귀환한 재일한인이 쓰는 북한식 언어는 한국인들의 차별적 평가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이런 반응을 직면하면 재일한인들은 상처를 받거나 ‘분노’를 느낀다. 조선대학교를 중퇴한 양 석에 의하면,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언어 습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인생을 다 부인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 (3) 일상에서 부딪히는 편견: ‘반쪽발이’ 혹은 ‘부자 재일교포’

제도적 장애와 언어 사용의 어려움 외에도 귀환자들은 일본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편견에 부딪히는데, 이러한 편견은 상당부분 한국사회의 강한 반일감정에서 연유한다.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이 재일한인에게 투사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반쪽발이’란 말일 것이다. ‘쪽발이’란 말은 일본의 식민지배기에 생겨난 말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인들이 신은 일본식 버선(타비)의 앞 발가락 쪽이 두 부분으로만 갈라져 있는 것을 보고 돼지 발(족발)에 비유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물론 일본인들에 대한 지독한 경멸을 담은 표현이다. 일본으로부터 온 귀환자들은 그들의 몸에 밴 일본문화의 특질이 노출되는 순간 ‘반쪽발이’로 불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 그들의 국적, 민족의식, 한국문화 구사 능력과 무관히 일본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든지 그 부정적인 호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반쪽발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변수가 있긴 하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를 했던 나라임과 동시에 경제 강국으로 다가온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제수준에서 격차가 컸던

11. 현재 조총련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연결되는 민족학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민단이 운영하는 민족학교는 조총련계 학교와 달리 일본 문부성의 인가를 받은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어를 공식어로 쓰고 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조총련계 사람들만 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보내는 것은 아니다. 한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히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는 재일한인 중에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 혹은 아이들의 인성교육에도 좋다는 이유로 조선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1960년대와 70년대만 하더라도 재일한인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팽배했던 이미지/편견은 ‘부자 재일교포’의 이미지였다. 다시 말해 재일한인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중적인 이미지를 투사하며, 경멸의 대상인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sup>12</sup>. 이러한 이중적인 이미지는 현재에도 남아 있지만, 최근 한국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부자 재일교포’의 이미지는 상당히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문우식은 “요즘 한국에 들어오는 재일조선인 젊은 사람들은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1960년대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식으로도 생각했지만, 요즘은 반대로 이쪽의 상황이 올라가서 ‘연민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지적한다.

또한 재일한인 귀환자들은 종종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받는다. 그리고 그 선택은 흔히 ‘민족성’의 존재 유무로 연결된다. 그러나 귀환자들이 국적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여기더라도, 일본은 나서 자란 곳이며 한국에 영구 귀국을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곳이다. 한국에서 살아 온 한국인처럼 일본에 대한 태도와 감정이 그렇게 단순하게 구획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한국생활 3년 반 짜인 된 양 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제 하숙집 아줌마가 그러는데요, “일본에서 왔으니까 돈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런 말 가장 많이 듣고요 돈 없어요, 저는 진짜. 그건 이미지니까 어쩔 수 없는 데, 재일교포라고 하면 대개 두 개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아, 우리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사람이네”하는 사람도 있고 ....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 그 말,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또 하나는 “촉구하면 한국하고

12.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문우식은 1966년 그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복잡한 심정을 회상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했어요, 마음이. 간단히 말해서 그때는 여기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은 저희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일본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저희들에게 표출하시는 것도 있고 반대로 저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제대로 밥도 못 먹는 상태가 아니어서 좋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죄스러운 생각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고 아버지가 일본에 남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처지가 되었던 건데, 아버지가 해방 직후 귀국하셨으면 지금 고아로 방황하거나 가난에 허덕이는 한국소년들,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을까 하는 식의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일본 중 어느 쪽 응원 하나?” 예전에 호주 갔을 때, 그때는 일본을 응원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팀을 더 잘 아니까. 깊은 생각 없이 이는 사람이 잘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호주의 같은 어학원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교실로 와서 “너 교포라며? 너 한국하고 일본 붙이면, 어느 쪽을 응원 하나?”, 그때는 일본이었는데 “한국”이라고 답했어요. 웬지 그렇게 대답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라서. 그랬더니 “오, 너 그럼 우리네!” 했어요. 지금도 그런 질문 받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은 독도문제로 바뀌었지만.

물론 제일한인 귀환자들이 한국사회에서 부정적인 경험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양 석은, 그 모든 편견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한국을 아주 좋아하며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정이 많고 열심히 살고, 한 명 한 명이 힘이 있고, 완성된 것 같은 일본사회에 비해 아직 사회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고 역동적인 것이 좋다고 한다. 이나라 역시 지금은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지금부터 하려는 일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단다. 두 명의 여성 피면담자는 가까운 장래에 결혼할 계획을 하고 있는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다. 20대의 또 다른 두 명의 피면담자는 아직 어디에서 살지를 정하지 못했으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무언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고 싶다고 했다.

### 3) 정체성: 갈등과 재구성

교포는 토마토야. 과일나라에서 자라온 토마토. 오늘날[어느 날?] 나는 과일이라고 느꼈다. 과일나라에서 토마토를 먹을 때는 소금을 뿌리는데, 생긴 그대로를 인정받고 싶었던 토마토는 야채 나라에 갔어. 조국에 간 거지. 하지만 야채나라는 토마토를 과일같이 취급할 때가 있었다. 게다가 설탕을 뿌리는 습관이 있었다(정구미, 2005: 157-158).

김선미는 어머니가 제일한인 2세인 아버지와 결혼하여 일본으로 건너온 경우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 친구들은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일본

인 친구들에게 특별히 차별을 받은 기억은 없고,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선미를 부러워하는 식이었다. 그녀는 일본에 있을 때는 스스로를 ‘재일 교포’라거나 ‘자이니치(在日)’<sup>13</sup>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다. 그냥 ‘한국인’이었기 때문이다.

선미는 한국어를 배우고 외교관이 되고 싶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행을 택했다. 다른 피면담자들과는 달리 그녀는 “더 온전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한국행을 택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이 한국인임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할 생각으로 서울의 한 명문대학에 입학했지만, 1학년이 끝나고 전공배정을 받을 때 학점이 좋지 않아 원하던 학과에 배정받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한국어 실력 때문에, 특히 한국에 온 뒤에 배우기 시작한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점이 나쁘게 나왔다고 생각한다. “다른 외국인보다는 글을 잘 썼고, 그렇지만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엔 대충해서 낸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담당교수들에게 외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재일교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현재는 ‘재일교포’란 말이 자신의 정체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말이 되었다.

정말 화난 적이 많았어요. 대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 재일교포가 뭐야, 하는 질문을 받으면.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아무래도 한국어 말투를 들어보면 외국에서 온 거 같으니까, 그렇게 물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 처음에는 재일교포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일본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재일교포’가 저를 쉽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어요. 제일 편해요, 그 한마디로. 아 일본에서 왔구나, 근데 한국인 이구나라고 이해하겠죠.

- 
13. ‘자이니치’란 말 그대로 “일본에 거주한다(머무른다)”는 뜻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재일 한인”의 줄임말로 일본 내의 구식민지 출신 한인 후손을 지칭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일본 내 영구거주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국과의 무조건적 동일시와 거리를 두면서 재일한인 교유의 위치를 강조하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재일한인의 정체성이란 쟁점 관련해 ‘자이니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선 권숙인(2000), 金泰永(1999), 朴一(199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많은 재일한인 귀환자들은, 김선미의 경우와 다르지 않게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국을 찾는다. 귀환의 동기는 복합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대부분의 피면담자들은 민족적인 이유를 지적했다. 민족적 뿌리를 찾는 것,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워 보다 ‘완전한’ 혹은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우 자주, 한국인이라는 이들의 정체성은 한국에 도착한 뒤 흔들리거나 약화되며, 귀환 재일한인들은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재일한인의 정체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몰이해의 배경 중 하나는 재일한인이 겪어 온 역사와 상황에 대한 많은 한국인들의 무지이다. 그들이 소수집단으로서 일본에서 겪어야만 했던 지독한 차별과 주변화에 대해 보통의 한국인들은 별로 알지 못하며, 심지어는 일본 내 한인의 역사가 식민지배에서 연유했음에 대해서도 감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sup>14</sup>. 한국인들에게 재일한인은 여러 종류의 재외한인 집단 중 하나일 뿐이며, 기껏해야 부자 나라에 사는 부자 교포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많은 재일한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국적은 여러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유지해 온 것이며 민족적 정체성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sup>15</sup>, 이러한 점은 한국에서 잘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한인 3세나 4세가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해외한인 집단이나, 다른 민족의 디아스포라 집단의 예와 비교해도 재일한인의 국적문제는 특수한 사례이다.

재일한인의 역사에 대해 무지하고 이해가 부족한 한국인들은 귀환 재일한인들을 ‘한국인 됨’에 대한 자신들의 잣대에 맞춰 평가해 버린다. 그리고 이

- 
14. 몇 년 전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던 대학의 한 학생이 일본 관서지방의 한 명문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일이 있었다. 일본에 간 뒤 얼마 후 그 학생은 연구자에게 급한 부탁을 하는 이메일을 보내 왔다. 수강하고 있는 강좌 중 하나가 재일한인 관련 강의인데, “도대체 재일한인이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강의를 따라가기 힘들니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해 달라는 것이었다. 위의 김선미의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재일한인에 대한 전반적인 무지는 현재 한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별로 예외적인 것은 아닌 듯하다.
  15. 재일한인들에게 국적문제가 갖는 의미와, 최근 국적을 돌려받고 진행되고 있는 재일한인 사회 내부의 변화상에 대해선 權肅寅(2007)을 참조할 수 있다.

평가 잣대에서 ‘온전한 한국인’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하루미 베푸가 일본인들이 일본인이 되기 위한 기준으로 고수한다고 지적하는, “영토, 사람(인종), 문화, 언어 사이의 상동성과 이 요소들이 하나의 세트에 가는 것”(Befu, 2001: 71)과 같은 것이다. 즉 문화적 능력과 언어 능력은 한국인의 유전자(‘피’) 속에 내재한 것으로 가정되며, 한국인의 혈통을 물려받고 한국인 외모를 한 사람이 한국어를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혹은, 한국인 혈통에 한국 국적까지 갖고 있고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문화와 언어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그런 사람은 외국인이거나 ‘반쪽발이’임에 분명한 것이다. 아래 이 나라의 말에서처럼 그들을 좀처럼 한국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부모님한테 한국에 대해 엄청 칭찬을 많이 듣고 제 머리 속에는 아주 이상적인 나라라는 인상이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저를 한국인으로 인정 안 해 준거라고 봐요. 재일동포? 그거 일본사람이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국적이 한국이라 하면 되게들 놀래요. 그때 되게 슬펐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제가 아무리 한국인이라고 설명해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교포에 대해. 자기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국적이 무엇이든 간에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내 국적이 지금 한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스꽝스럽데요, 그 사람들 말로는. 왜 일본 국적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든 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고 ... 그런 이야길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요.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온 국적인데 그런 한마디로 버릴 수가 있는 건지.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제 조금 귀찮아요.

이러한 무지와 일방적인 판단에 덧붙여 위에서 언급한 제도적 차별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재일한인 귀환자들의 자기 정체성을 손상시킨다. 그리고 이들은 조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타협하거나 수정해 간다. 2004년에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스트레스로 병이 나 반 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던 박혜선은 1년 뒤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현재 도달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절대 완벽한 한국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 이젠 포기했어요. 어떤 한국친구는 저를 일본사람이라 하고 다른 친구들은 “당연히 한국 사람이지” 라는 거예요. 헛갈리잖아요. 됐다고! 그래도 저를 일본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집에서 제사도 지내고 한국음식도 먹고 했었는데 ... 어떤 사람들은 “너는 국적도 한국이고 생긴 것도 한국인이고 말도 이 정도 되면 너는 한국 사람이다” ... 도대체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헛갈려서, 아, 이제 뭐 됐다, 재일교포 그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민족적 유산에 기초한 디아스포라 귀환자들의 정체성이 조상의 나라로 귀환한 뒤 문제시되고 흔들리는 것은 드문 현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일본으로의 귀환 이주가 급증한 일본계 브라질인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Linger, 2001; Roth, 2002; Tsuda, 2000, 2003) 이들이 일본에서 체류가 길어질수록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브라질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강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재일한인과의 차이는 양 집단이 ‘조국’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계 브라질인의 경우 일본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브라질적인 것과 보다 강하게 동일시”(Roth, 2002)를 하거나, “브라질다움을 일부러 드러내거나”(Tsuda, 2000), 이러한 것을 일종의 종족적(ethnic) 저항으로 연행하는 반면, 귀환한 재일한인의 경우 조국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일본과의 동일시 강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국인들이 자신을 한국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면서도 일본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여전히 기분 나쁜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이중의 부정”(유끼, 2001)을 통해, 즉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라는 부정을 통해 “양쪽 사이”(in-between)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혹은 아래 이나라의 말처럼 “양쪽 다”(double)이기도 하다.

저는 누가 뭐라면 한국인이라고 말해요. 쉽게 한국인들이 저를 일본인이다, 혹은 뭐 자이니치 교포다 해도 저는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규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이니치라고도 생각해요. 두 가지가 모순되지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일본인이라고 하면 되게 화가 나고, 자이니치라고 하면 뭐 그렇다고 하고, 너 한국인이냐 하면 그렇다 한국인이예요 하고, 그래요.

재일한인 귀환자들은 한국에 오면 “더 진짜 한국인”이 될 거라 기대했지만, 그리고 스스로는 여전히 한국인이라 생각하지만, “한국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 대신 ‘재일교포’라는 범주를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 한국에 오기 전 재일교포라는 정체성에 대한 입장은 다양했지만, 모든 피면담자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재일교포라는 범주를 무언가 긍정적이고 ‘한국인’과는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이야기 한다. 즉 이들의 경우는 조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출신국과의 동일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새롭게 강화된 재일교포 정체성은, 자신들이 재인식한 종족적 문화와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이행하기도 하는 다른 귀환자 집단의 경우와 달리,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재일교포’라는 종족적 정체성에는, 예컨대 일본계 브라질인의 삼바축제와 같은(Tsuda, 2000), 재일한인 귀환자들이 드러내거나 과시할 종족적 표식(ethnic markers)이 없다. 한국사회에서 재일교포라는 정체성은 여전히 개인화된, 비가시적인 것이다.

#### IV. 결론

분명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사회에서는 재일한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도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일본 내 재일한인의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재일한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을 가차 없이 비판하며 한국인들의 성찰을 촉구하는 재일한인 논자들 — 예를 들어 강상중, 서경식, 신숙옥, 윤건차 등 — 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 보다 많이 들린다. 시민운동단체나 학계에서도 재일한인 관련 쟁점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고, 공식·비공식적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조선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 <우리학교>가 개봉되면서 대학가를 비롯해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선풍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인터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일한인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많은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태도도 과거의 고정관념과 오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른 많은 디아스포라 귀환자들과 다르지 않게 재일한인 귀환자들은 조상의 나라에 온 뒤 자신들과 조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게 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새로 구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다른 나라 출신의 한국계 귀환자들과 비교할 때 재일한인의 귀환 동기 중엔 민족적 혹은 ‘정치적’ 이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사회에서 재일한인들이 겪어야 했던 심각한 차별과 배제는 재일한인 귀환의 중요한 배경이 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의 귀환자는 문우식의 표현을 빌자면 “일본사회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1980년대 이래 재일한인을 둘러싼 현실적인 상황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 연구의 인터뷰 자료들은 아직도 일본사회 내에서 재일한인이 겪는 정체성 혼란이 ‘조국’을 찾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일본 내 재일한인의 생활형편이 개선되고 한국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재일한인의 귀환은 그 어느 때 보다 ‘자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20-30대의 피면담자들은 일본에 있는 동안 (직접적인) 차별 경험이 없거나 거의 없었고, 만일 일본 대학을 갔더라도 일본에서 직장을 구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답을 하였다. 물론 김선미의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직종에 따라서는 엄연한 진입장벽이 여전히 있지만, 젊은 세대는 본인이 실력만 쌓으면 과거에 비해 취직차별은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나아가 요즘에는 “이중 문화”(bi-cultural)의 경험과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한국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적 능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서 이름 있는 대학에 가지 못할 바에야, 한국에서 이름 있는 대학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약간씩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유끼, 2001: 29)이라는 분석도 들린다.

적어도 당분간은 여러 ‘민족적 이유’가 재일한인 귀환의 중요 요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듯하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여러 요인, 예를 들어 일본사회에서 재일한인의 지위, 한국의 재외한인 정책, 한국의 경제적 위상, 재일한인 사회 내부의 (세대)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이런 다양한 요인의 작용에 따라 재일한인의 귀환에서 향후 보다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점점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더 많은 재일한인들이 인생설계에서 하나의 '초국가적 전략'으로 고국 귀환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 참고문헌

- 권숙인. 2000. 「재일한인의 아이덴티티: '제3의 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의 이론과 실천』. 소화출판사. pp. 499-520.
- \_\_\_\_\_. 2004. 「일본사회의 변화와 민족문제의 새로운 전개」. 『일본연구논총』 19집 1호. pp. 181-210.
- 권혁태. 2007.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 한국사회는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표상'해 왔는가」. 『역사비평』 78. pp. 234-267.
- 박재명·김상진. 2004. 「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중앙일보 대학생 기획·탐사기사 우수상(중앙일보 2004. 9. 30).
- 서경식. 2006. 『난민과 국민사이』. 돌베개.
- 유명기. 2002. 「민족과 국민 사이에서: 한국체류조선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35권 1호. pp. 73-100.
- 유끼(구라시게 정우희). 2001. 「한국에 유학하는 자이니치(在日) 학생의 삶과 문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정훈. 1997. 「재일동포의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 재일동포 모국 수학생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정기선, 유명기, 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집 5호. pp. 258-298.
- 전형권. 2006. 「모국의 신화, 노동력의 이동, 그리고 이탈: 조선족의 경험에 대한 디아스포라적 해석」. 『한국동북아논총』 38집. pp. 135-160.
- 정구미. 2005. 『재일교포 2.5세 '노란구미'의 한국일본 이야기』. 안그래픽스.
- 정대성. 2003. 「한국에게 재일동포란 무엇인가, 한일민족문제학회 엮음. 『재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삼인. pp. 50-67.
- 李進熙編. 1996. 『<在日>はいま : 在日韓国人・朝鮮人の戦後五十年』. 靑丘文化史.
- 金泰永. 1999. 『アイデンティティ・ポリテックスを超えて-在日朝鮮人のエスニシティ』. 世界思想社.

- 權肅寅. 2007. 「帰属とアイデンティティの分化と統合: 変貌する在日韓人社會の地平」. 伊藤亜人・韓敬九編, 『中心と周縁からみた日韓社会の諸相』. 慶應義塾大学出版会. pp. 257-294.
- 朴 一. 1999. 『<在日>という生き方: 差異と平等のジレンマ』. 講談社.
- 福岡安則. 1998(93). 『在日韓国・朝鮮人』. 東京: 中央公論社.
- Befu, Harumi. 2001. *Hegemony of Homogeneity: An Anthropological Analysis of Nihonjinron*. Melbourne: Trans Pacific Press, 2001.
- Dietz, Barbara. 2000. "German and Jewish Migration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to Germany: Background, Trend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6(4). pp. 635-652.
- Iglicka, Krystyna. 1998. "Are They Fellow Countrymen or Not?: The Migration of Ethnic Poles from Kazakhstan to Poland."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2(4). pp. 995-1014.
- Kashiwazaki, Chikako. 2000. "To be Korean without Korean Nationality: Claim to Korean Identity by Japanese Nationality Holders." In Sonia Ryang, ed. *Koreans in Japan*. New Haven: East Rock Institute. pp. 48-70.
- Kulu, Hill & Tiit Tammaru. 2000. "Ethnic Return Migration from the East and the West: The Case of Estonia in the 1990s." *Europe-Asia Studies* 52(2). pp. 349-369.
- Levy, Daniel. 2003. "The Politicization of Ethnic German Immigrants: The Transformation of State Priorities." In Rainer Münz & Rainer Ohliger, eds. *Diaspora and Ethnic Migrants*, London & Portland, OR: Frank Cass. pp. 289-304.
- Linger, Daniel Touro. 2001. *No One Home: Brazilian Selves Remade in Jap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ünz, Rainer. 2003. "Ethnic German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their Return to Germany," in Rainer Münz & Rainer Ohliger, eds. *Diaspora and Ethnic Migrants*, London & Portland, OR: Frank Cass. pp. 261-271.
- Münz, Rainer & Rainer Ohliger. eds. 2003. *Diaspora and Ethnic Migrants: Germany, Israel and Post-Soviet Successor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London & Portland, OR: Frank Cass.
- Roth, Joshua Hotaka. 2002. *Brokered Homeland: Japanese Brazilian Migrants in Jap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Tsuda, Takeyuki (Gaku). 2000. "Acting Brazilian in Japan: Ethnic Resistance among Return Migrants." *Ethnology* 39(1). pp. 55-71.
- \_\_\_\_\_. 2003. *Strangers in the Ethnic Homeland: Japanese Brazilian Return Migration in Trans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eturning Ethnic Koreans from Japan in Korea: Experiences and Identities

Sug-In Kw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ethnic Korean 'returnees' from Japan focusing on their experiences in Korea and reception/perception of returning Koreans-in-Japan in Korean society. I also explore how experiences in Korea affect ethno-national identities and sense of belonging and loyalty for the returnees.

Among the overseas diasporic Korean groups, the distinct feature of Koreans-in-Japan lies in that their history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and attitudes toward them in Korea are deeply influenced by the (post)coloni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is not always congenial. Because of the (post)colonial relationship, many Koreans keep negative attitudes toward Japan, the Japanese, and Japanese culture and these negative feelings are often projected on ethnic returnees from Japan. Another characteristic of Koreans-in- Japan as an ethnic minority group within a nation-state is their high level of cultural assimilation coupled with a low level of structural assimilation. Thus, most of the second or third generation returnees have legal nationality of Korea and/but are inept in Korean culture including the language. But for many Koreans who tend to think Korean blood, culture, and nationality as a set required to make 'a proper Korean,' cultural incompetence of the returnees is hard to understand. What is worse, the native culture and language of the returnees in this case is 'Japanese.'

Thus, Korean people often show high level of intolerance toward the returnees and hesitate to include them as fellow Koreans. The returnees, on the other hand, go through unexpected institutional barriers and prejudices and become disenchanted with their 'homeland'. Their former identities as a 'Korean' become challenged and problematized, and many come to embrace "*jaeilgyopo*" identities instead.

Key concepts: diasporic return, ethnic Korean returnees in Korea, ethnic identities, *ban-jjokppari*(half-Jap), *jaeilgyopo*

